

2025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6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림

성경: 골 1:18 하, 17 하, 3:11 하, 계 2:4-5, 22:1-2 상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큰 바퀴에 비유될 수 있다(비교 겸 1:15). 그리스도는 바퀴통(중심 혹은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그리스도는 테(둘레 혹은 하나님의 중심부)이시다 —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네”(영한 동번 찬송 513장 원문 참고).
- II.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아들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골 1:18 하, 17 하, 3:11 하.
- A.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 앱 1:10.
1.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엡 1:22-23)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과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창 1:1-2, 2절의 모든 각주).
  2.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서 성취된다 — 요 1: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롬 8:10, 6, 11.
- B.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왕들과 왕국들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신다 — 단 4:17, 26.
1.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려면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할 선택된 백성이 필요하다.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 롬 8:28-29.
  2.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뜨신 돌로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부수신 후에,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그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 단 2:34-35, 44-45, 계 17:14, 19:7-8, 11, 14, 19.
  3.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산이신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 앱 1:23, 4:10.
- III.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 되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타락과 악의 원인이다 — 렘 2:13.
- B. 시편 80 편 17절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 곧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가장 높은 지위, 으뜸의 위치가 주어졌다 — 행 2:33, 5:31, 빌 2:9-11.
- C.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된다 — 시 80:18-19.

- D.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 곧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 곧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신다 — 겸 47:1, 계 22:1-2, 21:21 하.
1.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어린양-하나님,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양과 그 영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보좌, 곧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 계 22:1-2, 비교 요 4:14 하.
  2. 우리는 “주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내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십시오. 주님, 온종일 나의 일상생활 전체를 당신의 보좌 아래로 이끄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들로 가득한 것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며 행정적인 권위와 왕국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정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보좌이시다 — 사 22:23, 히 4:16.
- E.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보좌를 위에 지닌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 겸 1:22, 26-28.
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이 있는지는 우리의 양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 롬 9:1, 고후 1:12.
  2.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을 것이며,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이다 — 행 24:16, 딤전 1:5, 19, 3:9, 딤후 1:3, 비교 마 5:8, 잠 22:11, 딤후 2:22
  3.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사 22:23, 히 4:16, 롬 5:21, 계 22:1.
  4.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얻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위치를 얻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단 4:17, 25-26, 5:18-31, 사 6:1-8.
  5.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높고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맑은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의 모양’은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청옥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리킨다 — 출 24:10.
  7.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 창 1:26, 계 11:15, 3:21, 22:3-5, 롬 5:17, 21.
- F.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고후 4:5, 비교 히 1:3, 8:1, 12:2, 시 80:1, 17-19, 110:1-7.
1. 우리의 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께 그분의 위치인 보좌 위에 앉으시도록 해야 한다 — 비교 아 1:1-4, 사 6:1, 3, 요 12:41.
  2.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다만 우리의 인격이다 — 고후 4:10-13, 요 12:24-26, 비교 뉴 12:49-50.
  3. 주님께서 “잘 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초월한다. 하늘에 속한 웃는 얼굴은 땅에 속한 모든 화난 얼굴을 초월한다.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초월한다 — 마 25:21, 23, 렘 1:7-9, 18-19, 단 4:26.

- G.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향한 다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준비된 작가의 봇이 되어, 그분의 온 존재에 따라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것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 시 45:1-2, 고후 3:3, 6.
  - H. 땅 위의 상황이 어떠하든, 민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승리를 얻고 번영하시면서 타고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신 날부터 타기 시작하셨고, 승리 가운데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타실 것이다 — 시 45:4-5, 사 5:20, 6:1, 행 5:31, 계 6:2, 19:11-16.
  - I. 왕권에 있어서 조력자들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실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사 42:1-4).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 곧 공동 왕으로 다스리는 성도들을 통해 민족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시 45:16-17, 계 2:26).
  - J.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실 수 있는 교두보이다 — 시 48:2, 단 2:34-35.
  - K.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 시 24:7-10.
    - 1.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며,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이시다(학 2:7).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벧후 3:8-9), 따라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
    - 2. 영광의 왕은 만군(곧 군대들)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체현 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다(눅 21:27, 마 25:31). 여호와는 예수님께서며, 예수님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마 1:21, 계 5:5).
    - 3.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이시다 — 단 2:34-35, 7:13-14, 롤 3:11, 계 11:15, 19:13-14.
  - L.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공평의 왕권은 그분의 왕국의 왕권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쁨을 그리스도께 부으시어 그분의 동반자들 위에 두셨다 — 시 45:6-7, 히 1:8-9.
- IV.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흥옥수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벽옥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의 수혜자들이 되어, 풍성한 생명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 계 4:3, 21:10-11 상, 롬 5:10.**